

# 中央大學校教育學科編

## 부·리뷰

# 韓國教育目錄

—라버트·버제스—

1960년에 출판된 도서중 이 韓國教育目錄은 교육가와 도서관인들에 대하여 가장 귀한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참고봉사에 있어 정기간행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교육 연구가의 질을 증진시켜 줄 것이며 도서관인들로 하여금 정기간행물 소장외의 관심을 기해 줄 것이다.

이 목록은 대체로 미국의 Education Index 와 비슷하게 되어, 미국의 색인과 같이 교육에 관한 잡지의 기사, 도서, 연구 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종합한 저자 및 주제명 색인으로 포함된 표목은 4,000을 초과하고 있다. 中央大學校 教育學科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류(不朽)의 저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길이 이들의 공로를 잊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가장 기쁜 소식은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추록(Supplement)을 간행하여 시대에 뒤지지 않는 색인으로 만들리라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전업직인이 이 계속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

이 색인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주부(主部) (p. 1~482)는 한 자모순으로 이루어진 저자, 주제, 주제명참조를 종합한 사전체 목록이다. 주제는 소항목으로 이루어져서 범위가 다루기에 쉬우며 한 주제 아래에 여러개의 기입이 열거되어 있다. 표목은 모두 한글로 기입되어 있으나 이상스럽게도 주제명참조는 한문으로 기입되어 있다. 또 “보라 참조”(See reference) 뿐만 아니라 “또보라”(See also r-

ference)도 가추어졌드라면 이책의 유용성을 더했을 것이다.

부록의 첫 부분은 대항목 주제(Broad Subject) 아래 배열된 「教育圖書 및 研究報告書의 目次 一覽」인데 각 주제 아래에서 책과 다른 자료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표제명에 의하여 자모순으로 배열되어져 있다. 우리는 때때로 도서가 서명에 의하여 기입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입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주부(mainsection)에는 저자순으로 된 목록이 실리어져 있으니 이용에 상관이 없을 것이다. 각 항목마다 서지적인 인퍼메이션이 충분히 주어지고 저자, 출판자, 출판지, 발행일, 면수(面數) 크기와 가격에 관한 인퍼메이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에 관한 내용 목차가 되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용할 어느 특정한 도서를 선정할 때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이다.

둘째 부록은 「教育學碩士學位論文目次 一覽」인데 이는 먼저 대학이름에 의하여 배열된 다음에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모든 서지적 인퍼메이션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대항목 주제로 이끄는 소항목주제의 구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어느 사람이 “생활지도”(Guidance)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책에서 모든 소항목주제 “가정과 생활지도” “학생자치활

동 “대학생관” “직업교육” 등은 대항목주제가 기입되어진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서로는 값도 비싸지 않은 셈이다. 이 책은 어느 도서관에서나 비치해야 할 것이며 교육학교수나 진지한 교육연구가의 책상위에 비치되어야 할 책이다.

또 이 책은 한국어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색인으로서 다른 주제 분야의 색인에 대하여 앞으로 본보기 구실을 할 것이다. 그렇고로 우리는 이 색인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그의 결점을 지적해 내어야 할 것이다.

(1) 이 책에는 색인되어진 정기간행물의 목록이 없다. 여러 도서관에서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갖추려고 할 것인데 그들은 이 교육목부의 표목을 낱말로 검사하고 나서야 그들이 소장하고자 하는 목록을 만들게 될 것이다. 추록(supplement)에는 색인된 정기간행물의 표제명과 취급되고 있는 자료와 출판자의 성명과 주소와 가격에 관한 인퍼메이션이 포함되어져기를 바라는 바이다.

(2) 또 이 색인에는 영자(英字)에 많은 오자(誤字)가 있다. “Washberne”은 “Washburne” (p. 20)으로 잘못되어 있고 “Dewey”가 “Dwey” (p. 37)로 “Hdvighirst”가 “Hovigurst” (P. 41)로 오식되어 있으며 194페이지에 있는 Buford 라는 이름에는 영어와 한글의 양편에 모두 오자(誤字)가 나타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큰일을 해 내는데 완전무결하게 오자를 제거하기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미국인 교수로 하여금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영어명을 읽고 교정하게끔 했었다더라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3) 또 편집상의 큰 결함이 몇군데 있는데 이러한 결함은 편집사무를 여러 사람이 맡아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나 이제 한 사람의 전임편집원을 채용했으므로 앞으로 간행될 수록(Supplement)에서는 이와같은 모순이 해소될 것이다. 아래에 몇가지 그 사례(實例)를 들어보면 Martin B. Garrison이 쓴 기사가 9페이지에는 “개리슨”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152페이지에는 “마리틴”이라고 기입되어 있고, Ethel C. Swiger가 쓴 기사는 성(姓)으로 기입되지 않고 266페이지와 같이 여사의 이름(名) “에셀”로 기입되어 있으며 또 여사가 쓴다는 기사는 141페이지에 “도서관학”이라는 주제표목아래에 기입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사가 쓴 기사를 저자인 여사의 성명을 가지고서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된다. Benjamin이 쓴 기사중 어떤 것은 “벤자민” (p. 157)으로 또 몇몇은 “하롤드” (p. 436)로 기입되어 있다.

(4) 주제명표목도 개선될 점이 있다. 자 표목선정까지를 비평할만큼 한국어를 잘 알지는 못하나 미국의 주제명표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개선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비루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나온 이제까지의 일반용 「주제명표목표」는 이 색인에서 사용될 표목과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비평이 중요하긴하나 이 참고서가 지닌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참고서는 이미 교육부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면 어느 도서관에서나 필요 불가결한 책인 것이다.

(필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조빙교수  
역자: 유소영)